

생의 비참을 감각하는 프롤레트쿨트

— 김기진의 192·3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김 정 남*

요약

김기진 문학에 대한 연구는 수많은 선행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논쟁사를 중심으로 한 비평 텍스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의 비평가적 면모는 심층적이고도 입체적으로 조명되었지만, 실제 그의 창작에서 이러한 문학관이 어떻게 구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장편소설을 제외하고 그 실체가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형국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볼셰비키 좌파(Leftist)의 프롤레트쿨트와 레닌의 볼셰비즘(Leninism)이 양자의 모순점을 변증법적으로 지양(止揚)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정치와 미학의 길항력이 그의 작품 속에 어떻게 감각적으로 투영되었는지 밝히고자 했다.

김기진은 프로문학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비평가였고 계급문학이 하나의 아지프로그가 되는 것을 거부하며, 현실에 대한 온당한 재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형상화를 위한 미학적 감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한 문예이론가였다. 이러한 그의 문학관은 자신의 단편소설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창작 방법론이 되어 투영된다. 우선 그는 「젊은 이상주의자의 사(死)」에서 토대로서의 식민지 경제의 파탄성을 자본제적 생산양식의 모순과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았으며 「3등차표」에서는 몰락의 길로 접어든 소자본가 집안을 배경으로 희망이 없는 조선 경제의 실상을 정확한 감각으로 포착하였다. 어촌과 인근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바다의 소품(小品)」에서 예각적으로 드러낸 자본주의의 현실은 도둑질로 상징되는 시적인 욕망의 먹이사슬과 이를 영속케 하는 자유와 안락이라는 이름의 문화적 탈승화 기제로 나타난다. 이 모든 것을 꺼안고 있는 식민지 근대의 전환기적 시대상은 「몰락」에서 연애관과 결혼관을 둘러싼 세대 갈등과 현실감각을 잃고 무모함으로 일주하는 고등

*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조교수

룸펜화한 사회주의 청년의 초상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렇게 생활 상태가 변하면 이에 따른 미의 카테고리도 변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김기진은 억지로 지어서 만들어 내는 환각과 착각의 부르주아 미학이 아닌, 그로부터 전유된 미학적 기법과 정확한 감각으로 비참한 계급적 현실을 부조한다. 이러한 문예학의 변증법적 태도는 그가 볼셰비키 좌파의 프롤레트쿨트의 관점에 입각한 단순한 원리주의자 이상의 문학관의 소유자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한다.

요컨대 비평가로서의 이론과 작가로서의 실체가 빚어내는 김기진의 문학적 백터는 최서해의 체험적 민공과 박영희의 목적의식의 한계를 동시에 지양한 하나의 성과라는 문학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의 소설미학은 내용과 형식, 정치와 미학, 볼셰비키 좌파의 문화적 급진주의와 레닌의 볼셰비즘에 입각한 예술관 사이의 대립적 양자를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지양할 것인가에 대해 응답한, '생의 비참'을 감각하는 프롤레트쿨트라고 말할 수 있다.

주제어: 볼셰비키 좌파, 레닌의 볼셰비즘, 내용과 형식, 정치와 미학, 생의 비참, 감각, 프롤레트쿨트

목차

1. 서론: 김기진 문학 연구의 공백 지점
2. 토대로서의 식민지 경제의 파탄성
3. 상부구조로서의 예술관과 추/미의 카테고리
4. 연애관과 결혼관을 둘러싼 사회주의 청년의 초상
5. 결론: 비평과 창작의 변증법적 백터

1. 서론: 김기진 문학 연구의 공백 지점

한국문학사에서 김기진은 프로문학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정초자로서 오묘한 상징성을 갖는다. 그가 일본에서 귀국 후 발표한 첫 평론 「프로모나드 상티망탈」은 그 시발점으로서, “생활 상태가 우리의 생활 의식을 결정”¹⁾한다는 유물론적 사유를 기반으로 민중 예술의 필요성을 역설

했다. 더불어 『백조』 3호에서 낭만주의를 하나의 ‘유령’으로 비판²⁾함과 동시에 동인은 해체되는데, 이는 1920년대 전반기의 감상적·퇴영적 경향의 문학적 흐름을 사회적·정치적 의식으로 전환시키는 분수령이 된다.³⁾

특히 근대 문학비평에서 텍스트의 미학성과 사회성에 대한 비평적 논쟁으로 뚜렷한 의의를 지니는 박영희와의 ‘내용·형식 논쟁’은 김기진의 문학관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박영희의 「철야」와 「지옥순례」에 대하여 “계급의식, 계급투쟁의 개념에 대한 추상적 설명”으로 일관한 나머지 “기동도 없이, 서까래도 없이 붉은 지붕만 입히어 놓은 건축”⁴⁾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하면서 시작된다. 소설건축론이라고 명명되는 이러한 김기진의 비판에 대하여 박영희는 “프로문예가 예술적 소설의 건축물을 만들기에만 노력한다면” “프로생활 묘사기에 불과”⁵⁾하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하지만 이 논쟁은 단순하게 기교와 실감 대(對) 계급과 당파, 내재 대 외재, 부르주아 비평관 대 프롤레타리아 비평관 사이의 논리의 대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우리의 근대문학 수립기의 하나의 아포리아를 형성한다. 일단 묘사의 충실성(기교)의 부재의 측면에서 선공을 펼친 김기진에 대하여 박영희는 그러한 관점이야 말로 프롤레타리아 문화를 망각한 예술지상주의적 부르주아 비평관이라고 비판한다.

여기서 과장되어 보이는 박영희의 이러한 논점의 이면에는 1920년대 초창기 문단의 커다란 사유의 축이 가로놓여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관하여 김시태는 당시 “예술을 위한 예술과 ‘인생을 위한 예술’이라

1) 김기진, 「프로모나드 상티망탈」, 『개벽』 37, 1923. 7.

2) 김기진, 「떨어진 조각조각」, 『백조』 3, 1923. 9.

3) 이것이 곧 “『백조』를 가득 채웠던 현실일탈의 유희주의적 열정을 현실 변혁의 열정으로 이끌었던 청년 지식인 김기진의 옆에 뜬 현실 진단”(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119면.)이기도 하다.

4) 김기진, 「문예월평·산문적 월평」, 『조선지광』 62, 1926. 12.

5) 박영희, 「투쟁기에 있는 문예비평가의 태도-동무 김기진군 평론을 읽고」, 『조선지광』 63, 1927. 1.

는 두 개의 슬로건”이 “감수성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음”⁶⁾을 지적하고, 박영희의 초기 비평에는 “예술과 인생(즉 계급)을 통합하려는 종합적 의지”⁷⁾가 나타난다는 점을 갈파한 바 있다. 이처럼 박영희는 문학과 계급적 당파성을 일치시키려는 사유의 입각점으로 인해 사회적·집단적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김기진은 “사물을 정확하게 감각”⁸⁾하려는 실감으로서의 미적 태도에서 그 해방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이러한 논쟁적 지점을 둘러싼 비평사적 접근은 김기진의 문학에 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의 비평가적 면모는 심층적으로 조명되었지만, 창작 과정에서 이러한 문학관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실체가 이상하리만치 가려져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심각한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 그의 문학에 대한 선행연구의 카테고리를 삼대분하면, ①논쟁사를 중심으로 한 비평적 접근, ②전기적 사실 및 영향관계에 관한 접근, ③장편소설에 대한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논쟁사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내용·형식 논쟁, 대중화 논쟁으로 대표된다. 여기서 선행연구는 박영희의 미학에 대한 경직된 태도와는 반대로 김기진의 비평관은 미학적 형식의 가치를 견지했다는 측면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는 그가 “정치≠문학이라는 인식을 토대”⁹⁾에 놓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정확한 감각”을 통해 부르주아컬트의 “꾸부러진 교화”로부터 개인의 감각을 해방시키려 했다¹⁰⁾는 사실과 연결된다.

둘째, 전기적 사실 및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김기진이 예술지상주의적

6) 김시태, 「박영희의 문학비평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구 한국학논집)8,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985, 284면.

7) 위의 책, 286면.

8) 김기진, 「감각의 변혁」, 『생장』 2, 1925. 2.

9) 이도연, 「김기진 · 김남천 비평의 사유 체계와 인식소들」, 『Journal of Korean Culture (JKC)』 49,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20, 208면.

10) 손유경, 「프로문학과 '감각'의 문제-김기진의 '감각의 변혁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2, 민족문학사연구소, 2006, 148면.

태도를 반성하고 조선의 빈궁한 상황에 대해 각성하게 된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의 소설 『赭土に芽ぐむもの』(붉은 땅에 싹트는 것-인용자)에 대한 논의¹¹⁾를 시발로, 그의 문학에 스며든 클라르테(Clar t ) 운동을 중심으로 한 바르뷔스로부터의 영향이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특히 롤랑-바르뷔스 논쟁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그의 선편(先鞭)이 “민족주의와 일체화된 식민지 사회주의 노선을 형성해 가는 데 큰 영향”¹²⁾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투르게네프와 바르뷔스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제국의 텍스트를 되받아 쓰는”¹³⁾ 비평적 노력이 하나의 탈식민주의적 전략이었음을 논증하였다.

특히 이론적 영향 관계에 있어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보그다노프(Aleksandr Bogdanov)를 위시한 볼셰비키좌파들에 의해서 건설된 “프롤레타리아문화라는 전국적인 문화조직”¹⁴⁾인 프롤레트콜트(proletcult-인용자)의 이념적 노선과 김기진의 문학관 사이의 관계도 논의의 중요한 지점을 형성한다. 이를 원용한 흔적이 농후한 김기진의 비평 텍스트가 바로 「지배계급교화 피지배계급교화」인데, 그는 여기서 “뿌르즈와, 켈트, 프로렛트, 켈트라는 말을” “便宜上 「支配階級教化, 被支配階級教化」라고 譯”하였음을 밝히고, “뿌르즈와의 문학에 대항해 일어난 오늘의 프로레타리아의 문학은, 프로레타리아의 美學우에서 잇는”¹⁵⁾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김기진의 입장은 “독자적인 프로레타리아 문화조직을 기획한 프롤레트콜트 노선에 상당히 근접”¹⁶⁾해 있는 것이어서 주목을 요한다. 그러나 리시

11) 박현수, 「김기진의 초기 행적과 문학 활동」, 『대동문화연구』 61,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8, 448면.

12) 권보드레, 「김기진의 ‘클라르테(Clar t )’ 번역과 한국문학의 레닌적 계기」, 『사이間SAI』 31,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1, 240-241면.

13) 김익곤, 「김기진의 문학 활동 연구」, 『호서문화논총』 제17집, 서원대학교 직지문화산업연구소, 2003, 51면.

14) 이득재, 「소련의 프롤레트콜트와 문화운동」, 『문화과학』 53, 문화과학사, 2008, 223면.

15) 김기진, 「지배계급교화 피지배계급교화」, 『개벽』 43, 1924. 1.

16) 손유경, 「팔봉의 ‘형식’에서 임화의 ‘형상’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5, 한국현대문학회,

아 프로문학의 상황에서 레닌은 프롤레트쿨트의 “볼셰비키 좌파들의 입장을 모험주의라고 비판”¹⁷⁾하여 볼셰비키 좌파의 노선과 레닌의 볼셰비즘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이념적 구도 안에서 이후 김기진은 내용 형식 논쟁과 대중화 논쟁을 거치면서 프롤레트쿨트적인 급진주의 노선이 갖는 “문화주의적 조급함과 급진성”을 성찰하고, 대중의 즉각적인 교화에 기반한 “프로레트쿨트 일파의 ‘순수’한 프롤레타리아 문화의 書齋的 건설의 시험”¹⁸⁾을 비판하며 레닌적 사유로의 전회를 꾀하게 된다. 그러나 투쟁기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에는 재래의 문학을 넘어뜨려야 하는 “프롤레트 쿨트의 소임” 또한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의 이면은 볼셰비키 좌파와 레닌주의 노선이 혼재되어 있음¹⁹⁾을 보여준다고 파악하였다.

셋째, 장편소설에 대한 접근은 최독견 外 5인 연작장편 『황원행』(1929)·장편 『해조음(海潮音)』(1930)·『청년 김옥균』(1934, 연재 당시 제목 『심야의 태양』)에 대한 분석에 의해 이루어졌다. 먼저 5인 연작(一사실은 릴레이 소설) 『황원행』은 “1920년대 말 검열의 회피와 다양한 대중 독자층의 확보를 위한 ‘위장된 통속’”²⁰⁾으로 평가하였고, 『해조음(海潮音)』은 유기적인 짜임이 분절되어 있으나 “대중소설에서의 기본적 논리를 충실하게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식민지 시대 문학 중에서 유일한 본격 해양소설”²¹⁾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청년 김옥균』은 한문체로 작성된 역사담물로서 대중적 소구력의 측면에서 “독자(讀者-인용자)적 위치 설정”²²⁾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2011, 146면.

17) 이득재, 앞의 책, 224면.

18) 김기진, 「레닌과 예술」, 『비판』 창간호, 1931, 5.

19) 손유경, 앞의 책, 152면.

20) 한기형, 「선전과 시장-“문예대중화론”과 식민지 검열의 교착」, 대동문화연구제7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2, 139면.

21) 양예경, 「김기진의 『海潮音』 분석」, 『문예시학』 2, 문예시학회(구 충남시문학회), 1989, 121면.

22) 정혜영, 「역사담물의 시대와 역사소설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김기진의 『심야의 태양』을 중심

이에 본 연구는 그의 전(全) 단편소설을 텍스트로, 볼셰비키 좌파의 프롤레트쿨트의 관점과 레닌의 볼셰비즘이 김기진의 문학에서 단순한 혼란이나 혼재가 아니라 이 양자의 모순점을 변증법적으로 지양(止揚)하는 과정에 있음에 착목하여, 정치와 미학의 길항력이 감각적으로 투영되어 있는 그의 작품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이는 당대의 논쟁의 층위에서는 그에 의해서 온전한 하나라고 말해진 내용과 형식의 삼투과정에 대한 서사적 탐구이자 아오노 스케이치(靑野季吉)적 관점에서는 외재와 내재의 변증법적 합(合)의 지평에 관한 문예학적 고구라 할 수 있다.

2. 토대로서의 식민지 경제의 파탄성

김기진이 『개벽』 9·10·11월호에 연속적으로 게재한 클라르테에 관한 평문²³⁾을 보면, 바르뷔스와 롤랑의 논쟁 속에서 일방적으로 바르뷔스적인 실천적 노선을 지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단순하게 롤랑적인 정신주의의 철회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²⁴⁾이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는 그가 문학이 하나의 아지프로(agi-pro)의 형식으로 전락하는 데에 대하여 “예술지상주의자가 슬퍼하는 정도보다 못하지 아니”²⁵⁾하다고 비유한 것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²⁶⁾ 그렇다면 김기진은 그가 맞서 싸워야 할 억압적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를 문학적으로

으로], 『한중인문학연구』 42, 한중인문학회, 2014, 137면.

23) 각각 「클라르테 운동의 세계화」, 「바르뷔스 대 로맹 롤랑 간의 쟁론」, 「또다시 클라르테에 대하여」가 그것이다.

24) 이은지, 「롤랑디스트로서의 김기진—초기 문예론에 나타난 ‘본능, 감각’의 문제와 전술(tactic) 변용」, 『한국현대문학연구』 62, 한국현대문학회, 2020, 147면.

25) 김기진, 「금일의 문학, 명일의 문학」, 『개벽』 44, 1924. 2.

26) 임화와 김남천 등 소장파가 주도한 카프의 제2차 방향전환으로 지칭되는 예술운동의 볼셰비키화 속에서 논란을 빚은 김기진의 ‘문학 대중화론’도 정치투쟁 일방도의 예술 운동을 경계하고자 한 사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로 형상화하였는가 하는, 식민지 사회의 물질 토대에 대한 그의 문학적 인식과 구현 방식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젊은 이상주의자의 사(死)」(『개벽』, 1925. 6)는 최척호(24세)라는 식민지 청년의 비참한 죽음의 이유를 전하기 위해 그가 생전에 남긴 여러 종류의 글들 중에 그의 일기를 소설적으로 추려 제시하는 일기체 형식의 작품이다. 일기 속의 화자는 살아가기 위해 개가 된다는 것은 상관없지만 “직접 그것들의 부하가 되어가지고 사냥개 노릇”을 하기에 “나의 양심은 붉다”(2: 32)²⁷⁾라고 진술한다. 여기서 그것들은 식민지배 권력과 그 하수인으로서의 자본가들을, 붉은 양심은 사회주의를 암시한다.

그들의 사냥개가 될 수 없는 화자는 자신이 사는 시대의 재화(災禍)의 원인을 “자본주의제 생산 조직과 이에 따라서 동반되는 군국주의”(2: 32)에서 찾고 있다. 이는 자유경쟁이 자본의 집적으로 이어져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독점자본주의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제국주의의 단계²⁸⁾를 지칭한다. 화자는 자신이 밭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이 일제의 침탈로 인한 식민지라는 사실을 새삼 떠올린다. 이와 동시에 식민지라는 말을 새겨보며 그 속에 담긴 신묘함과 가증스러움을 표출한다. 식민(植民)이란 글자 그대로 사람을 심는 일, 즉 사람을 그 땅에 보내어 살게 하는 일²⁹⁾을 뜻한다. 이

27) 본고의 텍스트는 김기진, 홍정선 편, 『김팔봉문학전집—IV, 시·소설·비평』, 문학과지성사, 1989.이며 작품의 일련번호는 수록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1. 「붉은 쥐」 2. 「젊은 이상주의자의 사(死)」 3. 「몰락」 4. 「본능의 복수」 5. 「3등차표」 6. 「바다의 소품(小品)」 7. 「봄이 오기 전」 8. 「장(張) 덕대」 9. 「날이 밝으면」 10. 「봉기(烽起)」 11. 「언덕 위에서」 12. 「장미 역정(薔薇歷程)」 이에 따라 인용출전은 (일련번호: 해당 페이지)의 방식으로 밝히기로 한다.

단, 본고는 192·30년대 김기진의 단편소설을 대상으로 함으로, 사진사를 초점화자로 해방 후 한국 전쟁의 상흔과 희망을 일기 형식으로 서사화한 「날이 밝으면」(『사상계』, 1957. 1-6), 전봉준을 중심으로 동학농민 봉기가 일어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다룬 「봉기(烽起)」(발표 지면 미상-인용자 주), 미군 남편에게 버림받아 정신이상이 된 미혼모와 이복으로 납치되어 간 초점인물의 딸과의 동일시를 통해 한국전쟁이 남긴 외상을 형상화한 「언덕 위에서」(발표 지면 미상-인용자 주)는 본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28) 에르네스트 만델, 이범구 역, 『후기자본주의』, 한마당, 1985, 18면.

식민지라는 기묘한 말 속에 스며있는 제국주의의 논리는 “남산 위로 자동 차가 다니게”(2: 30)된 격변의 상황과 이제 더 이상 국사당이 있던 목멱산이 아닌 식민의 정신적 상징인 조선신궁이 세워진 뼈아픈 현실로 구체화된다. 이에 화자는 “나는 남산이 밍다. 남산이 미워서 못 견디겠다.”(2: 30)고 한탄한다.

이 짧은 시퀀스 안에서도 김기진의 문학적 사유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먼저 거시적으로 자본제적 생산방식이 낳은 군국주의의 폐해인 식민지 사회의 특성이 제시되고, 이어 다른 땅에 사람을 심는다는 식민의 언어적 감각, 마지막으로 그 지배와 훼손의 상징으로 남산에 대한 감상이 제시된다. 그는 소설이 정치사회적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형식은 “정확한 감각”에 의해서 길어 올려진 현실이자 이를 통해 명시화되는 하나의 상징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감각은 환각과 착각이라는 “손장난 같은 ‘미’”와 구분된다.³⁰⁾ 요컨대 현실의 비참함을 통찰하는 정확한 감각이 그가 그 시대 문학에 요청한 미학적 규율인 것이다.

즉, 김기진의 정확한 감각은 프롤레트콜트의 관점에서 “계급의식의 각성”으로서의 “정치적 무의식”³¹⁾의 발견과 통하며 이는 곧 “프롤레타리아 철학에 입각한 변증적 사실주의”³²⁾를 의미한다. 그 구체적 실례가 되는 것이 「3등차표」(『동아일보』, 1928. 4. 15-25)인데, 이 작품은 줄폐업 상태의 모물상을 중심으로 조선 경제의 파탄성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텍스트이다. 인물 설정의 측면에서 김기진은 도시빈민·결인 등의 하층민

29) 일본 에도시대 난학자(蘭學者)인 시즈키 타다오(志筑忠雄)의 『쇄국론(鎖國論)』(1801)에서는 식민(植民)을 “人を植ること彼等が国の習なり、人を其地に渡して住しむるをいふぞ。”(사람을 심는 것 그들 나라의 습성이요, 사람을 그 땅에 보내어 살게 하는 것을 말한다.인용자 주)라고 풀이하고 있다.

30) 김기진, 「감각의 변혁」, 『생장』 2, 1925. 2.

31) 이도연, 앞의 책, 214면.

32) 김기진, 「변증법적 사실주의」, 『동아일보』, 1929. 2. 25.-3. 7.

에서 소재를 취하는 프로문학의 클리셰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는 식민지 조선의 자본 생태계를 고찰하기 위해 몰락의 길로 접어든 소자본가 집안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 작품에서 초점인물인 ‘인호’가 경영하는 모물전 광흥상회는 그의 부친으로부터 “하는 수 없이 떠맡은 중병 환자”(5: 63) 수준의 전방이다. 전방을 맡게 된 인호에게 날마다 날아드는 것은 은행의 독촉뿐이고, 일수를 물어대기에 여념이 없다. 우선 모물의 시세가 없어진 것은 “생활을 파산하고 마는 사람이 전조선을 들어서 해마다 십만여 명이 더 되는 형편”(5: 70)으로 그만큼 식민지 조선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는 유행의 변화도 한 몫을 했으니, 잘두루마기를 사 입기보다는 오버코트감으로 맵시 있게 만들어 입거나, 두루마기보다는 외투나 망토를 걸치는 것을 더 기꺼워하게 된 까닭이다.

또한 김기진은 서술자의 입을 빌려 식민지 도시의 구조적 현실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조선 사람이 경영하는 모물상은 퇴락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진고개의 모물상은 해마다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식민지 경성의 경제가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의 지배와 예속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일본인의 본정(남춘)과 조선인의 종로(북춘)라는 “식민지 도시의 불균등 발전(uneven development)에 근거한 공통적 구조인 이중도시(dual city)의 특성”³³⁾이 모물상의 흥폐(興廢)와도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경성의 상류 사회—총독부를 비롯하여 각 관청과 반관반민의 일본 사람 회사의 관리와 중역과 혹은 수노자들(5: 71)—의 “은혜의 날개 속에 기어들어가야만 달콤한 국물을 맛보”(5: 71)게 되는데,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은 식민지 권력의 기득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어 망하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서술자의 진술은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에 가로놓인 유리천장(glass ceiling)

33) 김정남,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도시성과 사회사적 맥락」, 『현대소설연구』 83,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197면.

을 인식케 한다.

약속 수행(약속어음-인용자 주)이 파사(破事)를 맞으며 급격하게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인호는 사업을 청산하고 빚을 갚은 후, 무슨 직업이든지 얻으려고 분주하지만, 모두 경영 곤란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다. 이는 당시 조선 사회가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며, 그는 해외(만주)로 가면 좋은 일이 있을까 생각하고 3등차표를 사 가지고 며칠을 고민한다. 결국, 만주행이 수포로 돌아간 인호는 동창생인 은행원 창수와의 대화 속에서 조선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모으겠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5: 73)이라고 일갈한다.

이는 우선 생산의 측면에서 조선은 원료의 공급지일 뿐 조선에서 판매되는 생산품은 “전부가 외국 물건”(5: 73)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유통의 측면에서 제국의 제품은 “지점이 아니면 특약점으로부터 조선 사람이 내오는 것보다 일이 할 내지 이삼 할은 더 싸게”(5: 73) 나오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이들 제품에 독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비의 측면에서 진고개(본정) 백화점 “하루 동안 고객의 사 할은 조선 사람”(5: 73)이라는 사실은 종로(북촌) 근방의 손님을 거지반 빼앗기고 있다는 뜻이다. 더불어 “최후로 저 사람들(일본인-인용자 주)이 일조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대도 조선 사람같이 아주 망해버리지 않는다는 유력한 조건”(5: 74)은 바로 은행에서 대부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은 금융권의 신용도에 있어서도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의 근본적인 지배와 예속이라는 정치·사회적 불평등에 근거하고, 그 구체적인 상황은 ‘먹고사는 일’로 지칭되는 경제적 토대에서 그 세목을 드러낸다. 이는 식민지 시기 거시 경제가 성장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선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른바 “개발 없는 개발”³⁴⁾의 모습을 적시한다. 김기진 소설에서 제시되는

34) 허수열, 『개발없는 개발—일제하, 조선경제개발의 현상과 본질』, 은행나무, 2005, 13면.

토대로서의 식민지 경제의 과탄성은 제국주의라는 자본주의제 생산양식이 가져온 폐해로서, 생산·유통·소비 모든 면에서 자본과 기술이 월등한 제국의 상품들과 식민지의 생산품은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조선인이 자본시장에 정상적으로 진입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원천적으로 희소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3. 상부구조로서의 예술관과 추/미의 카테고리

김기진은 진정한 프롤레타리아의 예술은 “생의 비참을 의식”³⁵⁾할 때 비로소 탄생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김기진 미학의 인식론적 토대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비통의 미”를 통해 그는 “예술의 공리성과 유희성을 동시에 보장”³⁶⁾받고자 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식민지 청년의 죽음의 원인을 그의 일기를 통해 역추적하는 「젊은 이상주의자의 사(死)」에서 청년의 입을 통해 제시되는 다음과 같은 문장과 통한다. 7월 22일 우후담(雨後曇)이라는 일기에서 화자는 “이 몸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가”를 살펴보겠다는 진술의 취지를 밝히면서, “억지로 지어서 만들고 꾸며놓는다는 것은 지나간 사람들의 미학에 대한 태도”였을 뿐, “우리의 미의식은 우리의 추의 표현에 있다”(2: 27)고 단언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일기가 예술이 되기를 기다린다고 언급한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전통미학에서 추(醜)는 미(美)와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추는 아프리오리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매개된 개념이다. 이러한 “추나 미의 형식적 차원이 지니는 잠재적 내용에는 사회적 측면이 나타”나는데, 가령 “예술에서 추를 허용하는 일은 반봉건적 의미”³⁷⁾를 띠게 된다. 김기진은 자신

35) 김기진, 「금일의 문학, 명일의 문학」, 『개벽』 44, 1924. 2.

36) 손유경, 앞의 책, 134면.

37) 테오도르 W. 아도르노, 홍승용 옮김, 『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97, 86면.

의 평론에서 “생활 의식의 분열은 미의식의 분열”을 일으켰다는 대전제 아래, 부르주아의 미학과 프롤레타리아의 미학을 구분한다. 여기서 ‘지나간 사람들의 미학’은 “기교의 미를 찾고 인종의 미를 설하는” 부르주아의 미학을, ‘우리의 미의식’은 “정의의 미를 찾고 반역의 미를 고창하는”³⁸⁾ 프롤레타리아의 미학을 가리킨다.

김기진은 또 다른 평론에서 “생활 상태가 변하면 생활에 대한 개념이 변하고” 이로 인해 “미의 카테고리까지도 변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근대인의 생활 감정과 중세기의 미학의 개념은 서로 도저히 맞을 수 없”으며, 아직도 중세기적 “멜로디에 취해서” “독방에 홀로 앉아 자위하는 예술가는 예술가가 아니다. 수음가다.”³⁹⁾라고 일갈한다. 그리하여 그는 “올봄, 여름내의 노동이 옮겨올을 먹여살리지 못하며, 올의 1,500만석의 쌀이 흰 옷 입을 우리의 것이 못 된다.” 그러니 “나는 예술가다!” 하고 바이올린 쥐고서 독일로 달아나지는 말아라!.....”⁴⁰⁾라고 절규하듯 말한다. 식민지의 비참한 현실을 앞에 두고서도 시대착오적인 예술에 탐닉하여 현실을 외면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이러한 전언은 동시대 부르주아 미학에 대한 안티테제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ller aux Peuple”이다. “Pour Peuple”이다. 인민에게로 가자, 우리의 할 일이 그곳에 있다.”⁴¹⁾는 그의 격언은 단순한 계몽주의적 발상이 아니라 아소 히사시(麻生久)로부터 전수받은 투르케네프의 영향으로 “혼돈과 오만과 숙면”에 빠진 조선이라는 “荒漠한 處女地에는 씨를 뿌리는 것보다도 쟁 그것을 가리 제치는 게 第一着으로 시작”⁴²⁾해야 하는 일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김기진의 비평적 관점은 ‘기둥’과 ‘서까래’로 상징되는 서사적 형식의 기본적인 구비를 강조한 데서 출발한 내용-형식 논쟁에서 잘 알 수

38) 김기진, 「계급 문학 시비론—피투성이 된 프로 혼의 표백」, 『개벽』, 1925. 2.

39) 김기진, 「너의 양심에 고발한다」, 『개벽』, 1924. 8.

40) 김기진, 「마음의 폐허—겨울에 서서」, 『개벽』, 1923. 12.

41) 위의 책, 251면.

42) 김기진, 「프로므나드 상티망탈」, 『개벽』 37, 1923. 7.

있듯이, 내용적 측면의 공리성뿐만 아니라 미적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형식은 곧 ‘감각’에 의해서 구체화되는데, 이는 “프롤레타리아의 생활을 지각, 인식하는 내용의 측면과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형식의 측면을 포괄”⁴³⁾한다. 이러한 그의 문예학의 변증법적 태도는 그가 볼셰비키 좌파의 프롤레트쿨트의 관점에 입각한 단순한 원리주의자 이상의 문학관의 소유자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한다.

이렇게 “예술이 심미와 공리를 합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비판하는 것은 “상업주의·자본주의 아래에서 예술품은 장식품이 되고 유희만 위해서 생산”⁴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가 「감각의 변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술 창작에 있어 핵심적인 인식의 기준은 ‘환각’과 ‘착각’과 같이 ‘오인된 감각’에 근거한 주관적 미의식이 아니라 사회적·계급적 현실, 곧 ‘생의 비참’에 대한 ‘정확한 감각’에 바탕을 둔 객관적 미의식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정확한 감각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혁명의 주체로서 무조건적으로 이상화하거나 그들만의 단일한 정치적 의식과 정서를 대변하는 관념적 인물로 그리지 않는다. 무지하거나 몰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무산계급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는 그의 리얼리즘의 정신은 「바다의 소품(小品)」(1929. 11)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1. 정어리, 눈깔사탕’, ‘2. 야경(夜景)’, ‘3. 선 라이스’, 이렇게 3개의 소제목으로 구분된 이 작품은, 어촌과 인근 바다를 배경으로 독립된 3개의 이야기가 연작의 형태로 자리하고 있다. 통시적 서술에 바탕을 두고 서사적 완결성을 추구하는 리얼리즘 소설과는 달리, 분장(分章) 형식을 통한 비통시적 서술은 모더니즘 소설에서 주로 기대고 있는 서사적 전략이다. 이는 현실을 ‘내용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자기인식적 ‘형식’ 자체 속에 포함시

43) 오세인, 「1920년대 김기진 비평에서 ‘감각’의 의미」, 『비평문학』 39, 한국비평문학회, 2011, 158면.

44) 김기진, 「금일의 문학, 명일의 문학」, 『개벽』 44, 1924. 2.

키는”⁴⁵⁾ 모더니즘 소설이 전유한 형식 미학을 유연하게 수용한 서사전략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그의 비획일적인 서사 전략은 “근대자본주의 사회의 난제들 앞에 절망”하며 “집을 나와 전차길을 따라 걸으며 “가없는 꿈”(1: 14)이라는 “산책자적 사유”⁴⁶⁾를 펼치는 「붉은 쥐」(『개벽』 53호, 1924. 11.)에서 이미 뚜렷한 조짐을 드러냈다.⁴⁷⁾ 이어 비극적 죽음을 결행한 식민지 청년의 삶을 파편적인 일기 형식으로 구성한 「젊은 이상주의자의 사(死)」, 어촌을 배경으로 만연한 착취와 향락적 문화 현상 등을 독립된 장으로 그려낸 「바다의 소품(小品)」, 봉건적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어머니를 초점화자로 내세워 근대사회의 이념에 급경사한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적 아이러니를 통해 전환기적 시대상을 형상화한 「물락」(『개벽』, 1926. 1), 남성 신문기자를 초점인물로 화류계 여성의 “기생 노릇”(12: 226)을 둘러싼 파란만장한 삶을 다룬 옴니버스 소설인 「장미 역정(薔薇 歷程)」(발표 지면 미상-인용자 주)은, 형식 미학의 가치를 중시했던 김기진의 문예학적 특성을 증명한다.

여기서 「바다의 소품(小品)」 중 ‘1. 정어리, 눈깔사탕’은 “포구마다 정어리 비료공장”(6: 76이 생긴 시대적 변화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촌 풍경을 담고 있다.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정어리 잡이에서부터 공장 노동 그리고 비료 건조에 이르기까지 노동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 서술자가 주목한 장면은 배에서 잡아온 고기를 훔쳐 사탕과 바꾸어 먹는 아이들과 이들의 도박을 이용해 돈을 버는 옛장수의 모습이다.

45) 나병철, 『근대성과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1995, 186면.

46) 김정남, 「프로소설에 나타난 미학의 정치성 연구—자크 랑시에르의 문학의 정치 개념을 바탕으로」, 『현대소설연구』 8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214면.

47) 박영희에 의하면 김기진의 「붉은 쥐」는 바르뷔스의 「지옥」에서 암시를 받아 그의 스타일대로 써보려고 한 작품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박영희, 「초창기 문단측면사」, 이동희·노상래 편, 『박영희 전집』 2, 영남대 출판부, 1997, 327면.) “당시 한국 소설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혼란한 관념적 언어”(권보드레, 앞의 책, 201면.)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공장 주인이 “이 개종자들 남의 공장 앞에 와서 무시기 도적질 배와 주니 잉? 날래 가지 않겐!”(5: 78)이라고 소리를 질러도 이들을 당해낼 수가 없다. 서술자는 이렇게 도둑질한 물건이 거래되고 있는 장면에 다음과 같은 주해를 달고 있다. 이들을 욕하는 “공장 주인도 제 것이 아니오 뱃 사람에게 빚을 지워놓고 대부분 체면 좋게 빼앗은 것에 지나지 않는 바” (5: 78) 도둑놈은 아이들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이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5: 79)라는 설의(設疑)를 통해 사익 추구를 통해 끊임없이 도둑질을 할 수 밖에 없는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비판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는 소도(小盜)가 횡행하는 포구의 미시적 장면을 통해 대도(大盜)가 용인되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직관으로 나아가는 인식의 원근법이라 할 수 있다.

‘2. 야경(夜景)’에서는 번창하던 정어리 낚시가 끊어지고 모두 함흥 바다를 떠날 준비를 하는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술집만은 어느 곳이나 흥성하여 소주 판매소라고 문패만 걸어 놓으면 “바다가 그 앞에 있고 달빛이 그 위에서 춤추는 방안에는 얼굴빛 검고 허리 굽은 맨발 벗은 여자들”(5: 80)이 있어 사내들은 피가 끓어 게 집의 팔목을 잡아끈다. 서술자는 이러한 현실을 “바다의 희극”(5: 81)이라 명명하며, “무지와 허름한 향락과 그들을 봉쇄하는 사회적 무시설(無施設)이 타파되기 전”(5: 81)에는 이러한 퇴폐 향락으로 상징되는 자본주의의 탈승화(de-sublimation)적인 문화 기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결국 자본주의 제도는 이러한 가장된 풍요 속에 인민의 의식을 마취시켜 버림으로써 모든 대안을 봉쇄해 버리는, 이른바 자유와 안락이라는 이름의 “고상한 노예”⁴⁸⁾를 양산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지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출항과 한밤의 어로 그리고 이튿날 일출의 장면에 호응하는 붉은 팜플

48) 허버트 마르쿠제, 차인석 역, 『1차원적 인간—삼성관 세계사상전집 33』, 삼성출판사, 1993, 40면.

렛(혁명 사상을 담은 유인물일 것-인용자)을 보고 있는 젊은 선원의 기상으로 마무리되는 '3. 선 라이스'를 포함하여, 앞선 1장과 2장의 장면은 김기진이 비평을 통해 제기한 프롤레타리아의 삶에 대한 구체성과 이에 대한 정확한 감각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사적 의미를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목적의식이나 정치성을 근거로 끊임없이 폄훼되었던 프로문학을 향한 천편일률적인 비판 이전에, 작가가 현실에서 무엇을 감각하였고 이를 통해 어떠한 기동과 서까래로 서사를 건축해 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진 이 작품은 1장에서 낮, 2장에서는 저녁~밤, 3장에서는 낮(오후 3시)~아침(이튿날 새벽 5시)으로 이어지며, 포구와 어촌마을 그리고 거친 바다 위에서 구체적인 삶의 단면을 포착해 낸다. 그가 '소품'으로 명명한 이러한 프롤레타리아의 생의 단면들은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형상화와 이에 대한 논평적인 서술이 한 몸이 되어 전형적인 선경후정의 겹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그가 미학과 정치, 예술과 실천, 롤랑디즘과 바르뷔스주의, 더 나아가 레닌의 볼셰비즘과 볼셰비키 좌파의 프롤레트쿨트 사이의 아포리아를 관통해 가고자 했을 가능성도 이 겹구조 속에 함의되어 있는 것일 수 있다.⁴⁹⁾

4. 연애관과 결혼관을 둘러싼 사회주의 청년의 초상

김기진은 “프롤레타리아 문예의 발생적 본질”은 “‘무’에서 추출된 혹은 창조된 ‘유치한 인간의 상상의 창조’는 아닌 것”⁵⁰⁾이라고 강조한다. 이러

49) 단, 고용을 살고 있는 주인 변호사의 딸의 풍만한 육체를 탐하다 실패한 후 길거리에서 그녀를 우연히 목격하고 다시금 욕망에 불타오르는 「본능의 복수」(『문예운동』, 1926. 1)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적 상징과 소년다운 혈맥을 상징적으로 연관시켰다 할지라도, 그 본능적 행위가 주제적으로 계급적 복수와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50) 김기진, 「무산문예작품과 무산문예비평-동무 회월에게」, 『조선문단』 19, 1927. 2.

한 관점에서 그는 순수한 프롤레타리아 문화를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프롤레트쿨트의 급진주의를 거부하며 그 추상적 논리 대신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고 혼재된 구체적 현실을 묘사해 내고자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이념에 대한 관념적 환상 속에서 자기모순과 무모성을 드러내는 사회주의 청년의 비루한 초상이다.

이러한 인물을 둘러싼 연애관과 결혼관은 구세대와 신세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며 전환기의 사회상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창으로 기능한다. 여기서 자유연애 담론은 개인의 선택권과 자유와 연결되면서 근대담론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김기진은 이러한 연애를 둘러싼 근대사회의 변화와 친구 세대의 갈등을 보여주는 작품을 통해 시대상을 예각적으로 포착함과 동시에 사회주의에 경도된 신세대와 구세대의 갈등을 겹쳐 놓음으로써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정확한 감각으로 건져 올린다.

「마음의 폐허」에서 김기진은 “연애라는 것을 일종 감정의 유희라든가 혹은 프티 부르조아의 감정의 소산물이라는 말은 너무도 인생에 대한 편견일 것”이라고 말하며, 근대담론에 있어 연애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분명히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소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광수의 『무정』(『매일신보』, 1917)도 그 인물구도 자체가 이형식-김선영-박영채 사이의 연애삼각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가는 이를 통해 동요하는 시대의 지형도를 상징적으로 부조하였다. 당대에서는 이러한 하이틴로맨스가 신문지상에 게재된다는 것이 소재적 차원에서도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졌는지는 당시 양반들이 연애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⁵¹⁾를 했다는 사실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51) 『無情』은 “朝鮮古來의 道德律을 파괴한다.”는 빗발같은 비난을 받았으며 여학생들은 박영채를 너무 불쌍하게 만든다고 항의하는가 하면 韓昌洙 남작 등 중추원 양반 이십 여명은 連署로 총독부와 京城警察署 每日申報社에 진정서를 내어 無情의 中斷을 요구하면서 “李光秀란 어미아비없이 자란 下鄉 상놈의 자식”이라고 인신공격까지 퍼부었다. (『문단 반세기(3)—춘원과 첫 장편 무정』, 『동아일보』, 1973. 4. 17.)

먼저 「몰락」은 이에 대한 뚜렷한 하나의 문학적 성과로 제시할 수 있는 수작이다. 이 작품은 전환기적 시대상을 둘러싼 인물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그로 인한 갈등 양상을 세밀하게 포착하고 있는데, 이를 형상화하는데 기여한 최선의 선택지는 바로 화자의 설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부인)를 초점인물로 등장시켜 사회주의에 경도된 아들에 대해 푸념을 늘어놓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서사는 구세대 여성의 시선을 통해 구세대인 화자 자신은 물론 이에 포착된 신세대인 아들의 가치관을 서로 되쏘아보이며 상호 성찰할 수 있는 계기점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인은 병중에도 양친의 얼굴도 알지 못하는 외손녀 필순의 곁을 지키려 애를 쓰고 있다. 이 와중에 영감이라는 사람은 시골에서 젊은 첩을 얻어 가산을 탕진하고 부인이 있는 서울엔 살림을 보내주기는커녕 앓아가지 않는 것이 다행인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에 다니던 아들이 사직을 하고 “무슨 주의가 어떻느니 두루마기가 어떻느니 이놈의 땅덩이가 얼른 꺼져버려야만 하느니”(3: 43) 부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주의란 당대를 뜨겁게 달구었던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것이고 이를 이해할 길 없는 부인에게 아들의 모습은 그저 “나쁜 책을 읽고 함부로 날”(3: 43) 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오십여 년 동안의 인생 경험으로는 “조선 사회 상태의 변동”과 “그 방향에 대해서” “아무런 관찰과 해답을 주지 못하”(3: 44)는 부인을 초점인물로 내세운 것은, 작가의 서술전략으로서 ‘신빙성 없는 화자 (unreliable narrator)⁵²⁾를 통해 상황적인 아이러니를 조성함과 동시에 인물 상호간의 비판적 거리를 산출해 내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전환기 사회에서 봉건적 여성이 처한 난처를 보여주기 위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초점인물의 상황에 대한 무지함 저편에 이를 이용하거나 능멸하려는 자들의 속악함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는 데 핵심이 있다. “어머

52) 김정남, 『현대소설의 이해』, 경진출판, 2020, 122면.

니 같이 썩어빠진 생활에 물젖은 사람들이 그저 돌아가실 때나 기다리고 국으로 기세요! 잔말이 무슨 잔말이람!”(3: 43)과 같은 아들의 말은 패륜적 언사에 다름 아니고, 부인을 자식과 함께 서울로 올려보내는 대신 자신은 “수발이나 거들 만한 계집이나 하나 얻어가지고 지내겠소.”(3: 45)라고 말하는 영감의 태도는 후안무치에 가깝다. 전자의 경우는 미래로만 달려가려는 자의 경박성을, 후자의 경우는 과거에 사로잡힌 자의 퇴행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거지는 이슈는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아버리는 아들에 관한 일이다. 그런 아들에게 조강지처를 버리는 법은 없으며 사내자식이 한 계집뿐이겠느냐고 설득을 하지만, 아들은 막무가내다. 자신은 “철 모르는 마음에 그것도 효도라고 장가들었”(3: 47)을 뿐, 잘못은 부모에게 있지 자신에게는 없으며 이에 아내를 반드시 친정으로 보내고야 말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급기야 아들은 아내를 끌어내고 인력거에 태워서 정거장으로 내몰아버린다. 이것이 단지 전통적인 강제 결혼의 폐해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 아들의 행위는 경솔하기만 할 뿐이며 이에 대한 부인의 반박도 구시대적이다. 이에 두 인물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간극만큼이나 이들의 사고방식과 행위는 긍정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럴수록 부인은 현재와 단절하고 과거에 더욱더 심리적으로 고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인제는 그 자식도 나하고는 딴 남이다. 다른 나라 백성이다!’(3: 48)라는 자식에 대한 체념과 ‘그저 옛날 세상만 같았으면!’(3: 48)하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 그것이다. 이렇게 구시대의 상징으로 제시되는 어머니는 「젊은 이상주의자의 사(死)」에서 ‘도깨비’와 ‘해골’로 비유되고, 아들은 “어머니는 당신의 아나크로니즘(시대착오-인용자) 때문으로 멸망하게 되었”으며 이런 어머니는 “사라져버리도록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고 나!”(2: 28)라고 탄식한다.

이에 “상놈이 양반을 업수히 보”(3: 49)는 신분질서의 혼란과 삼강오륜으로 상징되는 유교적 질서가 자취를 감추는 세대에 부인은 한심함을 금

치 못하는 반면, 아들은 자신의 아내가 “사랑도 없는 남편이라는 것 때문에 평생을 문서 없는 종노릇”만 하고야 말 것이라며 아내를 “친정으로 보내 버리고 이혼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도리어 정당한 일”(3: 52)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남녀관에서 비롯한 결혼관은 기성세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가치관이다. 이에 부인의 심정이 점점 더 “난조(亂調)로 발전”(3: 53)해 갈수록 아들은 “망해가는 계급의 불쌍한 인생. 영원히 다시 살아나지 못할 가련한 인생”(3: 53)이라 폄하하며 몰락해 가는 양반사회의 질서와 윤리를 거부한다. 이처럼 몰락하는 양반 가정을 배경으로 구시대 도덕관을 가진 어머니와 새로운 사상에 눈 뜬 아들을 대립적으로 부조함으로써,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 공존이라는 전환기의 사회상을 정확한 감각으로 포착하고 있다.

그러나 김기진은 구시대의 윤리를 비판하는 신세대의 태도와 그들의 신념에 일방적인 옹호의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주의 이념에 경사되어 있는 청년들의 생각은 당대성에 비추어보았을 때 지나치게 급진적이거나 영성하다. 「몰락」에서 사회주의 청년은 아내를 내동댕이치듯 처가로 내쫓는 “무조 축출”의 “폐덕몰상한 일”(3: 50)을 일방적으로 감행하고 있거니와 이념의 환상 속에서 퇴사를 감행하고 갑작스레 “육체 노동하겠다는 등 외국으로 달아나겠다는 등”(3: 42)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이상주의자의 사(死)」에서는 화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시골에서 한 달에 칠팔십 원밖에 안 되는 밥벌이에 머리가 희어가지만 자신은 아무 일도 못하고 무위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곱고 거룩하고 빛나는 커다란 생각을 하고 있”(2: 29)이며 “지금 이 현실이 나의 이상과 배치되는 까닭”(2: 30)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관념적 경사로 인해 현실감각을 잃어버린 채 사회적 부적응을 앓고 있는 모습을 읽힌다. 이에 어머니는 이런 까닭도 모른 채, 자신을 “빙충맞은 것”(2: 30)이라고 비난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

서, 화자는 자신과 동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보며 또 그런 빙충맞은 조선 청년을 많이 안다고 말한다. 이처럼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자각 없이 관념만 비대해진 이상주의자는 결국 자살이라는 자기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념으로서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아무 일도 못 하고 놀고 먹고 있”(2: 29)다는 것은 스스로의 과대망상을 정당화하는 낭유(浪遊)적 상황의 전형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어설플 이념이 무모한 자기 확신으로 이어지고⁵³⁾ 이로 인해 사회적 무능과 무기력을 경험하는 당대 청년 사회주의자의 초상은, 정상적인 사회진입의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현실감각의 상실로 인해 고등뿔뿔화하는 식민지 시대 지식 청년의 영성곳은 의식 수준과 초라한 현실 인식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내보이고 있다. 이는 이념에 대한 자기 확신에 기초한 목적의식화를 모토로 내건 당대 프로문학과 독자적인 프롤레타리아 문화를 상징한 프롤레트쿨트의 모험주의와 차질되는 것으로, 과장된 이념 혹은 위장된 진보에 대한 성찰적 기능을 수행⁵⁴⁾하고 있는 김기진 소설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53) 이는 이광수의 『무정』(1917)의 말미에서 ‘형식’이 생물학을 연구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생물학이란 참뜻을 알지 못”하는 난감함에 비유할 수 있는 것으로, “생물학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새 문명을 건설하겠다고 자담하는 그네의 신세도 불쌍하고 그네를 믿는 시대도 불쌍하다.”(이광수, 『무정』, 어문각, 1973, 224면.)는 서술자의 침입적 논평에도 부합한다.

54) 이러한 측면에서 배를 타고 러시아본문에는 “마우제들이 사는 덴가?”(7: 94)라는 대화로 제시됨.로 월경하러다 경성으로 압송되어 옥고를 치르게 되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봄이 오기 전」(『신가정』, 1934. 3)이나 “사금광으로 찾아다니며 덕대를 부러어가면서 일을 하다가 전채 산을 잃어버린 뒤”(8: 107) 이곳저곳 금점관을 다니면서 밥을 빌어먹는 가련한 덕대의 이야기인 「장(張)덕대」(『개벽』, 1934. 11)도 목적의식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식민지와 자본주의라는 이중고의 현실 속에서 좌절과 전락을 경험하는 험벗은 존재들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5. 결론: 비평과 창작의 변증법적 벡터

지금까지 김기진 문학 연구의 미개지(未開地)였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그의 미학관과 예술관이 어떻게 창작의 문면에 투영되어 나타나는지 고찰하였다. 문학사의 뜨거운 장면일수록 작품 그 자체보다는 이를 둘러싼 논쟁이라는 이름의 설왕설래만을 이슈로 삼거나 이에 대한 주석적 언급이 대세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프로문학의 발생과 방향 전환, 그리고 민족문학과와의 대립을 중심으로 논쟁점이 형성된 식민지 시대 비평 논쟁 뿐만 아니라 해방 후 1960년대 불거진 소위 순수참여 논쟁 역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논쟁이라기보다는 문학의 사회적 좌표에 대한 인식론적 차원에서의 공방이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처럼 논쟁은 무성하되 그 근본이 되는 텍스트는 실종되어 있는 것이다.

식민지 시대 프로문학의 초석을 놓은 그는 불행하게도 전향 이후 매일 신보 사회부장으로 1938년 9월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를 수행하며 「남총독 수행기」를 쓰기도 했으며, 징병과 학병을 선동하는 시 「나도 가겠습니다—특별지원병이 되는 아들을 대신해서」(『매일신보』, 1943. 11. 6.)를 게재하는 등 친일 문필 활동으로 급격하게 선회한다. 그러나 그의 황민 문학과 친일 행각으로 인해, 세계사적 조류와 함께 했던 조선 프로문학의 비평적 이론가이자 창작자였던 그의 업적까지 사상되어서는 곤란하다. 식민지 시대 문학을 언급할 때 친일이라는 프레임으로 문학적 성과를 단죄하기보다는 공과(功過)를 구분해 그 의미를 헤아려야 할 필요가 있다.

김기진은 프로문학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비평가였고 계급문학이 하나의 이지프로그가 되는 것을 거부하며, 현실에 대한 온당한 재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형상화를 위한 미학적 감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한 문예이론가였다. 단순하게 말해서 이는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지양과 삼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예술관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러한 그의 변증법적 비평관은 외재와 내재라는 이원론적 클리셰를 불식하며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문예 비평이란 “내재”도 아니고 ‘외재’도 아니다. 이것은 둘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다.”⁵⁵⁾리는 사실을 강조한다. 같은 관점에서 대항담론으로서 프롤레타리아 문화에 대한 급진주의를 추구하는 볼셰비키 좌파와 부르주아문화 전통에 대한 계승과 전유를 주장하는 레닌의 노선 사이의 지양은 그의 단편소설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창작 방법론으로 투영된다.

우선 그는 「젊은 이상주의자의 사(死)」에서 토대로서의 식민지 경제의 파탄성을 자본제적 생산양식의 모순과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았으며 「3등차표」에서는 몰락의 길로 접어든 소자본가 집안을 배경으로 희망이 없는 조선 경제의 실상을 정확한 감각으로 포착하였다. 이렇게 생활 상태가 변하면 이에 따른 미의 카테고리도 변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김기진은 억지로 지어서 만들어내는 환각과 착각의 부르주아 미학이 아닌 비참한 계급적 현실에 대한 정확한 감각을 기초로 한 프롤레타리아 미학을 강조한다. 어촌과 인근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바다의 소품(小品)」에서 예각적으로 드러낸 자본주의의 현실은 도둑질로 상징되는 사적인 욕망의 먹이사슬과 이를 영속케 하는 자유와 안락이라는 이름의 문화적 탈승화 기제로 나타난다. 이 모든 것을 껴안고 있는 식민지 근대의 전환기적 시대상은 연애관과 결혼관을 둘러싼 세대 갈등과 사회주의에 경사된 고등 룬펜화한 청년의 초상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 예로 「몰락」은 어머니라는 구세대를 대표하는 신빙성 없는 화자를 내세워 신세대 아들과의 대립각속에서 표면화되는 근대적 결혼관을 둘러싼 갈등과 설익은 이념으로 인해 현실 감각을 잃고 무모함으로 일주하는 룬펜 청년의 실상을 드러내며 당대의 시대적 아이러니와 한계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요컨대 비평가로서의 이론과 작가로서의 실체가 빛어내는 김기진의 문

55) 김기진, 「무산문예작품과 무산문예비평-동무 회월에게」, 『조선문단』 19, 1927. 2.

학적 백터는 최서해의 체험적 빈궁과 박영희의 목적의식의 한계를 동시에 지양한 하나의 성과라는 문학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의 소설 미학은 내용과 형식, 정치와 미학, 볼셰비키 좌파(Leftist)의 문화적 급진주의와 레닌의 볼셰비즘(Leninism)에 입각한 예술관 사이의 대립적 양자를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지양할 것인가에 대해 응답한, '생의 비참을 감각하는 프롤레트쿨트'라고 말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김기진, 홍정선 편, 『김팔봉문학전집—IV. 시·소설·비평』, 문학과지성사, 1989.

2. 단행본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김정남, 『현대소설의 이해』, 경진출판, 2020.

나병철, 『근대성과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1995.

이광수, 『무정』, 어문각, 1973.

허수열, 『개발없는 개발—일제하, 조선경제개발의 현상과 본질』, 은행나무, 2005.

시즈키 타다오(志筑忠雄), 『쇄국론(鎖國論)』, 1801.

Adorno, Theodor W, 홍승용 옮김, 『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97.

Mandel, Ernest, 이범구 역, 『후기자본주의』, 한마당, 1985.

Marcuse, Herbert, 차인석 역, 『1차원적 인간—삼성관 세계사상전집 33』, 삼성출판사, 1993.

3. 논문·평론·기사

권보드레, 「김기진의 ‘클라르테(Clarté)’ 번역과 한국문학의 레닌적 계기」, 『사이間SAI』 31,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1, 199-243면.

김기진, 「프로르나드 상티망탈」, 『개벽』 37, 1923. 7.

——, 「떨어진 조각조각」, 『백조』 3, 1923. 9.

——, 「마음의 폐허—거울에 서서」, 『개벽』, 1923. 12.

——, 「금일의 문학, 명일의 문학」, 『개벽』 44, 1924. 2.

——, 「너의 양심에 고발한다」, 『개벽』, 1924. 8.

——, 「감각의 변혁」, 『생장』 2, 1925. 2.

——, 「계급 문학 시비론—피투성이 된 프로 혼의 표백」, 『개벽』, 1925. 2.

——, 「문예월평-산문적 월평」, 『조선지광』 62, 1926. 12.

——, 「무산문예작품과 무산문예비평—동무 회월에게」, 『조선문단』 19, 1927. 2.

——, 「변증법적 사실주의」, 『동아일보』, 1929. 2. 25.-3. 7.

——, 「레닌과 예술」, 『비판』 창간호, 1931. 5.

김외곤, 「김기진의 문학 활동 연구」, 『호서문화논총』 제17집, 서원대학교 직지문화산업연구소, 2003, 41-56면.

- 김정남,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도시성과 사회사적 맥락」, 『현대소설연구』 83,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189-221면.
- , 「프로소설에 나타난 미학의 정치성 연구—자크 랑시에르의 문학의 정치 개념을 바탕으로」, 『현대소설연구』 8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207-239면.
- 박영희, 「투쟁기에 있는 문예비평가의 태도—동무 김기진군 평론을 읽고」, 『조선지광』 63, 1927. 1.
- 박현수, 「김기진의 초기 행적과 문학 활동」, 『대동문화연구』 61,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8, 435-474면.
- 손유경, 「프로문학파 ‘감각’의 문제-김기진의 ‘감각의 변혁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2, 민족문학사연구소, 2006, 127-147면.
- , 「팔봉의 ‘형식’에서 입화의 ‘형상’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5, 한국현대문학회, 2011, 139-167면.
- 양애경, 「김기진의 『海潮音』 분석」, 『문예시학』 2, 문예시학회(구 충남시문학회), 1989, 101-122면.
- 오세인, 「1920년대 김기진 비평에서 ‘감각’의 의미」, 『비평문학』 39, 한국비평문학회, 2011, 156-181면.
- 이도연, 「김기진·김남천 비평의 사유 체계와 인식소들」, 『Journal of Korean Culture (JKC)』 49,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20, 201-254면.
- 이득재, 「소련의 프롤레트콜트와 문화운동」, 『문화과학』 53, 문화과학사, 2008, 222-239면.
- 이은지, 「롤랑디스트로서의 김기진—초기 문예론에 나타난 ‘본능, 감각’의 문제와 전술(tactic) 변용」, 『한국현대문학연구』 62, 한국현대문학회, 2020, 143-178면.
- 정혜영, 「역사담물의 시대와 역사소설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김기진의 「심야의 태양」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42, 한중인문학회, 2014, 119-140면.
- 한기형, 「선전과 시장 “문예대중화론”과 식민지 검열의 교착」, 대동문화연구제7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2, 121-145면.
- 편집부, 「문단 반세기(3)—춘원과 첫 장편 무정」, 『동아일보』, 1973. 4. 17.

<Abstract>

Sensing the ‘misery of life’ Proletcult

– Focusing on Kim Gi-jin's short stories in the 192-30s

Kim, Jeong-nam

In spite of the achievements of numerous preceding studies, the research on Kim Gi-jin's literature mostly consists of critical texts centered on the controversial history. Through this, his critical aspect was illuminated in depth and three-dimensionally, but the reality of how this view of literature was actually realized in his creation is completely hidden except for novels. In response, this study sought to reveal how the political and aesthetic antagonism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dialectically avoiding the contradictions between proletcult of 'Bolshevik left'(Leftist) and 'Bolshevism of Lenin'(Leninism) was sensibly projected in his work.

Kim Gi-jin was a critic who laid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proletarian literature, and was a literary theorist who rejected class literature as an agi-pro, and emphasized the fact that an aesthetic sense for shaping is necessary for a reasonable representation of reality to be possible. This view of his literature is projected as a specific creative methodology in his short stories. First of all, he found the cause of the collapse of the colonial economy as a basis in 「The Death of a Young Idealist[젊은 이상주의자의 사(死)]」 in the contradic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and in 「A third-class ticket(3등차표)」, the reality of Joseon's hopeless economy was captured with an accurate sense by setting a small capitalist family on the path to

decline. The reality of capitalism revealed acutely in 「A literary sketch of the Sea[바다의 소품(小品)]」, which is set in fishing villages and nearby seas, appears as a food chain of private desires symbolized by theft and a cultural de-sublimation called freedom and comfort that perpetuates it. The transitional era of colonial modernity that embraces all of this is embodied in 「The down-fall(몰락)」through the generational conflict surrounding views on love and marriage and the portrait of the lumpen Intellectual socialist youth who loses his sense of reality and wanders around recklessly. From the perspective that as the state of life changes, the category of aesthetic changes accordingly, Kim Gi-jin embodies the miserable class reality with the aesthetic techniques and accurate sense appropriated from it, rather than the bourgeois aesthetics of hallucinations and illusions that are forcibly created. This dialectical attitude toward literary studies clearly makes us realize that he possesses a view of literature that is more than a simple fundamentalist ba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Proletcult of the Bolshevik left.

Accordingly, Kim Gi-jin's literary vector, created by theory as a critic and practice as a writer, has the meaning of an achievement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simultaneously avoiding the limits of Choi Seo-hae's experiential poverty and Park Young-hee's sense of purpose. From this point of view, novel aesthetics can be said to be a 'Proletcult' that senses 'the misery of life' in response to how to dialectically avoid the confrontational two sides between content and form, politics and aesthetics, and Leftist and Leninism.

Key words: Bolshevik left(Leftist), Bolshevism of Lenin(Leninism), content and form, politics and aesthetics, the misery of life, sense, Proletcult

투 고 일 : 2023년 7월 29일

심 사 일 : 2023년 9월 8일

게재확정일 : 2023년 9월 8일

수정마감일 : 2023년 9월 18일